

결핵은 ‘함께’ 치료해야 할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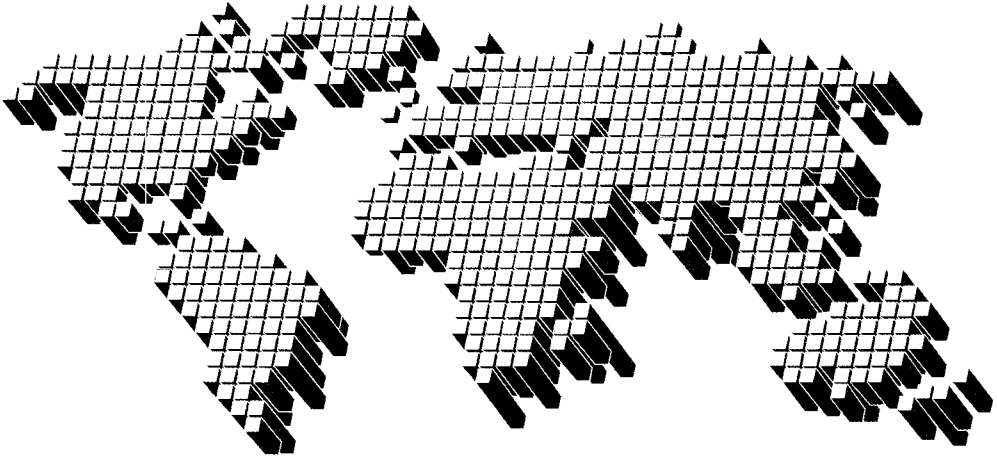
글_박연숙(본지기자)

오는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세계 결핵의 날이란 로버트 코흐가 결핵병의 원인인 결핵균을 발견하여 결핵 치료의 길을 연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기원전 7천년의 미이라에서도 결핵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결핵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건강을 해친 질병이면서 끈질기게 퇴치되지 않고 있는 질병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핵균의 발견은 의학사적 쾌거이자, 인류사에도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결핵의 날은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올해는 세번째 STOP TB PARTNERS 포럼이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첫 번째 포럼은 2001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두 번째 포럼은 2004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바 있다.

WHO의 결핵퇴치 전략과 전 세계 결핵퇴치 공동체의 공조 강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결핵퇴치 기금 조성은 물론 새롭고 혁신적인 연계 및 지원, 세계결핵의 경향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결핵퇴치를 위한 행사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3월 24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결핵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식전행사로 결핵퇴치를 위한 거리캠페인이 시청 앞 광장 일대와 대한결핵협회 시도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정부표창, 복십자대상 시상, 홍보대사 위촉식 등이 진행된다.



올해는 기념식 이후에는 2008년도 결핵관리사업을 평가하고 2009년도 사업을 논의하는 결핵평가대회가 열린다. 1시 30분부터 식이 막을 내리는 6시까지, 결핵관계자라면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알찬 내용들로 결핵의 날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결핵의 날에 앞선 3월 22일에는 다국적제약회사인 한국달리,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와 함께 자전거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외에도 결핵홍보전광판이 운영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핵무료검진, 결핵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로버트 코흐가 결핵치료의 길을 열었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결핵의 날은 해가 거듭될수록 수많은 결핵환자들의 축제로, 결핵퇴치를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기념일로 자리잡고 있다.

왜 결핵 하면 어두운 이미지만 떠올려야 하는가? 잘만 치료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결핵, 그런데 왜 아직도 결핵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숨겨야 하는가? 결핵이란 병을 양지로 끌어내고,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것을 보다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는 27회 세계결핵의 날이 되길 기원한다. †